

국립현대무용단, 무용 창작 활성화 프로젝트 '2021 안무랩' 결과공유회 진행

윤진보연 기자 | 승인 2021.09.29 09:34

2년차 맞아 쇼케이스·프레젠테이션 등 심화된 결과 공유 프로그램 선보여

[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]안무가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국립현대무용단(예술감독 남정호)은 리서치 및 실험 활동을 장려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<2021 안무랩>의 결과공유회를 진행한다.

<2021 안무랩>은 2020년 안무랩 사업 선정자의 심화 리서치, 그리고 올해 새로이 합류한 안무가들의 신규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.



▲국립현대무용단 <2021 안무랩> 심화 리서치 참가자 3인(왼쪽부터)정금형, 이선아, 이윤정(사진=국립현대무용단 제공)

전년도 사업 참가자 중 다음 단계로의 발전가능성이 돋보였던 안무가 3인을 선정하여 각 방향성에 적합한 쇼케이스 제작 지원을 진행했으며,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인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안무가 3인을 신규 참가자로 선정하여 개별 리서치 활동을 추가 지원했다. 초기 리서치 지원 및 쇼케이스 제작 지원 등 과정 중심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무용 창작 방식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안무가들의 창작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.